



우리의  
家章

#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明求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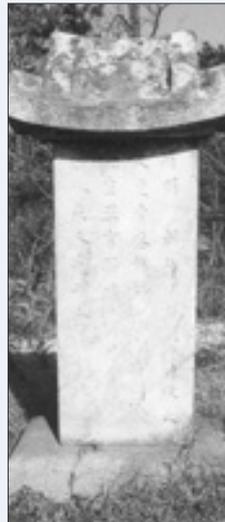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 11世祖 正言公 諱：蒼 영죽팔절첩후(咏竹八絶帖後)



▶ 正言公 諱 令 墓所 소재지：파주시 월농면 영태리



▶ 묘비

삼가 정언공(正言公) 휘 영(莖)의 대나무를 읊은 팔절의 시화첩(詩畫帖) 말미에 글을 쓰나니. (공의 공은 절개가 민멸되어서는 안되며 가첩과 묘문(墓文)도 없으나 오직 이 기록만은 어찌 없어야 하리오.) 위에 기록한 팔절시(八絶詩：여기서는 팔쪽의 그림에 절시(絶詩) 八수를 이르는 나의 외고조부이신 심정언공(沈正言公)께서 귀양 가 계실 때 지은 것이다.

아! 슬프도다. 공의 휘는 영(莖)이오, 字는 천로(天老)이니 青松人이다. 明宗 乙巳(1545)년에 사간원(司諫院)에서 근무할 때 정당한 간언으로 항변하다가 죄를 얻어 처음에 단성(丹城)으로 귀양 갔다가 벽동(碧潼)으로 옮겨 가게 되었는데 길이 양재역(良才驛)을 경유하여 지나갔다. 당초에 공의 조카별 되는 정언각(鄭彦愨)①이 일찍부터 공에게 깊은 원한을 갖고 있었는데 공께서 평소 주홍색깔을 써서 고운 붓으로 시제(詩題) 쓰기를 좋아함을 알고 언각이 스스로 나라를 원망하는 글을 만들어서 역의 벽상에 붉은 글

씨로 써 붙이고 공의 필적인양 꾸며서 그 벽지를 걷어서 조정에 헌납했고, 흥인(凶人) 진부창(陳復昌)②이 힘껏 조력하여 큰 옥사로 얽어매었다. 이로써 공이 끝내 화를 면하지 못하고 언각은 이런 공으로 영달을 얻어 병조의 당상관이 되었다. 하루는 비를 무릅쓰고 관아로 가는 도중 큰 바람이 홀연히 일어나서 입모(笠帽)가 땅에 떨어지고 말이 놀래 뛰니 시종드는 사람이 고삐를 놓치고 언각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말이 등자구멍에 끼어서 빠지지 않고 말은 더욱 놀래 달아나고 더욱 빨라서 언각은 팔다리가 빠져 죽었으며 다만 다리 하나만이 등자에 걸린 채로 마침내 말이 공의 집 문 앞까지 끌고 왔는데 살펴보니 공께서 병랑(兵郎)으로 있을 때 타던 말이었으니 다들 귀신의 소행이라 하였다. 공의 아들 인기(仁祺)가 청단도(靑丹道) 찰방(察訪)으로 있을 때 부창의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연루되어 이 역으로 와서 복역했는데 끌려 다니다가 영을 여겨서 곤장으로 치니 진부창이 더욱 우려되고 분통이 터져 병에 걸려

쓰러져 죽었으며 그의 자식 역시 이 일로 목매어 죽었다. 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이 무심타고들 하나 반드시 이 두 건의 일을 보게 되면 그 되돌아가는 이치와 양갈음되는 효험이 과연 어떠한가? 공은 늘 손수 일간 견문이나 행사 및 읊조리는 시문들을 찬술하여 기록해 두는데 그 시귀들을 붉은 글씨로 써서 구별했으니 이름하여 우정록(雨晴錄)이라 했고, 모두 九卷이었는데 병화중에 잃어버리고 다만 마지막에 쓴 한 권이 있었다. 공의 증손인 군수 경구(景龜)가 당시 꾸며서 가보로 간직했었는데 군수가 죽은 뒤에 또다시 잃어버렸다. 공은 정성스럽고 굳은 총절로 써 일찍 참화에 얽혀 이미 한 때에 크게 펴보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옛날의 문장들이 또한 없어져서 후세에 전하지 못했으니 거듭 슬플 뿐이다. 공이 평소 글씨와 그림을 잘 했는데 다성에 있을 때 손수 소죽(疎竹)과 순(筍), 풍(風), 우(雨), 연(煙), 호(袖), 노(老), 설(雪), 등 팔죽(八竹)을 그려서 각각 절시 한 수씩을 지어 넣었으니 대개 마음 내키는 대로 스스로 만든 것이나 그림 역시 잃어버리고 유독 그 때의 시만이 지금껏 남아 있어서 읽게 되니 표현이 긴박하고 뜻이 바르다 무릇 그 굳고 바른 기운과 맑고 엄숙한 형용이 능름하게 좌우에 있는 것 같아서 진실로 공경스럽다.

외 현손 기성 조문형(箕城 趙門衡) 삼가 씀.

주(註)

① 정언각(鄭彦愨)：행주정가 1498~1556(明宗 11년). 字는 근부(謹夫)진사 희검(希儉)의 아들. 선조 때 경기도 관찰사와 모든 관직이 추탈(追奪)되었음.

② 진부창(陳復昌)：?~1563(明宗 18년) 본관은 여양(驪陽). 字는 수초(遂初) 현감 의손(義孫)의 아들. 사관(史官)은 이자를 독사(毒蛇)라고 기록하였고 공조참판(工曹參判)까지 역임하다가 삭탈관직되고 삼수부(三水府)에 귀양갔다가 죄가 가중되어 위리안치 되었다가 귀양처에서 죽었다.

### 公 告

## 青松沈氏安孝公宗會 端午節祀奉行 및 定期總會開催

二 八年度 安孝公 端午節祀 奉行 및 定期總會을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많은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日時：二 八年 六月 八日(日曜日) 十時  
場所：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四一番地 安孝公墓前 齋室  
會務報告 및 附議案件

- 一 二 七年度 主要 會務報告
- 二 二 七年度 一般 特別會計 및 補償金管理會計決算(案)承認의件
- 三 二 八年度 主要事業計劃(案)承認의件
- 四 二 八年度 一般 特別會計豫算(案)承認의件
- 五 議決權委任承認의件
- 六 當面懸案事項 報告
- 七 其他 討議事項

二 八年 五月 日

青松沈氏 安孝公宗會

會長 沈斗燮

문의처：三一 二五三一 八 六  
二五四 一八 六六

# 朝鮮後期 天才 畫家

##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평전(評傳) 겸재(謙齋)에게 그림을 배우다 - ②

남태응 집안은 그의 5대조부인 병조참판 남이신(南以信, 1562-1608)과 이조판서 남이공(南以恭, 1565-1640) 형제가 소북의 선봉이 되면서 소북의 중심가문이 된다. 그런데 소북은 대체로 서울 부근의 기호지방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기득권 층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소북은 보수색채가 가장 짙고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혁신이념인 조선성리학을 이념기반으로 하는 조선성리학과 즉 서인을 가장 적대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인조반정(1623) 이후 서인들이 정국을 주도하며 조선성리학을 주도이념으로 삼아 문화전반에 조선고유색을 발현해 나가자 소북계열들은 이념대결에서 설자리를 잃고 퇴계계의 남인에 의탁하여 퇴계학설을 계승하며 기호(畿湖) 남인을 자처한다.

이들 기호남인들은 영남의 퇴계학과와 연계하여 예송(禮訟)이나 왕위계승 문제 등을 빌미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환국(換局)을 도모하여 정권을 탈취해 보지만 이미 사회의 주도이념으로 확고하여 자리잡아 문화전반을 주도해 나가는 조선성리학이념에 대응할 길이 없어 변변치 않다고 말았다. 그 결과 조선성리학과와 정통인 노론이 추대한 영조가 등극하고 이를 무위로 돌리려는 남소론 반란인 이인좌란(1728)이 진압되어 소북계의 사회주도는 가망 없게 되었다.

이에 남태응 같은 소북계 인사들은 이미 문화주도층에서 밀려나 있으면서도 자신이 아직도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새로 출현한 수준 높고 고유색 짙은 겸재의 진경산수화풍이나 풍속화풍을 고의로 무시하여 치지도외하고 조선전기의 잔재를 간직한 채 서인과 교류하여 진경풍속의 기미를 열어놓고 있는 공재만을 조선제일 화가로 드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공재가 예송에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과 격렬하게 대립하던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증손으로 소북계 기호남인이었기 때문이다.

어떻든 남태응은 겸재를 폄하하기 위해 현재가 겸재에게서 배워서 불만하지 않다는 기록을 현재 26세때 남기고 있으니 그 훨씬 이전에 현재는 겸재에게 나가 배웠던 것을

직작할 수 있다. 그래서 심익운은 현재거사묘지 에서 소시(少時) 즉 소년시절에 정원백을 스승으로 삼고 수묵산수를 했었다 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시적이 언제이고 얼마동안 가르침을 받았던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아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 당시 현재의 집안형편과 겸재의 근황을 연계하여 추론하는 도리밖에 없다.

앞서 밝혔듯이 현재의 조부 심익창(沈益昌, 1652-1725)은 숙종 25년(1699) 10월 20일에 치러지는 단종복위 창경 증광별시에 과거부정을 저지르려다가 발각되어 숙종 26년(1700) 경진 2월 5일에 관산으로 귀양가서 10여년을 지내고 숙종 37년(1711) 8월경에 풀려난다. 그러니 현재는 그 조부가 과옥죄인으로 귀양살이하는 사이에 태어나서 사대부 집안에 태어났으면서도 과장출입이 금지된 불운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미 그 부친형제들도 같은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부친인 죽창(竹昌) 심정주(沈廷胄, 1678-1750)도 장인인 곡구(谷口) 정유점(鄭維漸)으로부터 그림을 배워 포도그림으로 평생을 자오(自遊, 스스로 즐기며 놀)한다.

죽창은 그 조부 만사 심지원이 서화에 탁월한 재주를 타고났었다고 그 숙부 청평위 죽오(竹塢) 심익현(沈益顯, 1641-1683)도 송설체의 대가였으므로 서화가문의 혈통을 타고나 처가의 화풍을 쉽게 계승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4자 1녀가 명화가였던 육오당(六吾堂) 정경흠(鄭慶欽, 1620-1678) 일가의 명화혈통을 모계로 하고 만사와 죽오, 죽창으로 이어지는 서화혈통을 부계로 이어받고 태어난 셈이다.

그래서 심익운의 현재거사묘지 에서 밝힌 대로 물건을 형상지를 줄을 스스로 터득하여 모나고 둥근 형상을 그려 낼 수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천재화가의 자질을 타고난 현재였으니 화가인 부친 심정주나 화가의 딸로 화가의 부인이 된 현재 모친 하동(河東) 정(鄭)씨(1678-1744)가 그 천재성을 간파하지 못했을 리 없다. 그래서 여차피 과거로 출세하지 못할 바에야 명화가로 이름을 얻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겸재(謙齋) 정선(鄭敎, 1676-1759)이 숙종37년(1711) 신묘년에 [신묘년풍악도첩(辛卯年楓嶽圖帖)] 즉 [해악전신첩(海嶽傳神帖)]을 그려내 화명을 크게 떨쳐 사대부사회의 부러움을 산다. [해악전신첩]은 지난해 5월 금화현감으로 부임한 단금(斷金)의 벗이자 진경시(眞景詩)의 대가이며 삼연(三淵) 김창흠(金昌翕, 1653-1722) 문화의 동문인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의 초청으로 함께 금강산을 여행하며 시(詩)와 그림으로 사생하여 이를 한데 합쳐 꾸며낸 시화합벽첩(詩畵合璧帖), 주옥같은 시와 그림만을 한데 모아 꾸며낸 시화첩이었다.

벽帖, 주옥같은 시와 그림만을 한데 모아 꾸며낸 시화첩이었다.

겸재는 다음해인 숙종 38년(1712) 임진 8월에도 사천의 초청으로 사천의 부친인 수암(樹庵) 이숙(李淩, 1647-1720)을 모시고 사천의 아우인 순암(順庵) 이병성(李秉成, 1675-1735)과 국계(菊溪) 장응두(張應斗, 1670-1729) 등과 함께 금강산을 여행하고 다시[해악전신첩]을 꾸며낸다. 이 여행길에서 겸재 일행은 현재의 당숙들이인 고성(高城)군수 심정로(沈廷老, 1653-1712)와 통천(通川)군수 심정구(沈廷耆, 1656-1714) 형제들을 현지에서 만나 대접받고 돌아온다. 따라서 죽창은 종형들을 통해 겸재의 [해악전신첩]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해 11월 3일 몽와(夢窩)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이 동지겸사은사 정사가 되어 연경으로 가면서 그림 잘 그리는 아우인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을 자제군관으로 대동해 가니 노가재는 겸재, 관아재, 공재, 화원 이치(李樞)의 그림들을 가지고 가서 다음해 (1713) 2월 8일에 연경의 감식안인 마유병(馬維屏)에게 감시를 부탁한다. 마유병은 겸재 그림을 으뜸으로 꼽았다. 이에 겸재는 조선제일의 화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이때가 현재 7세 때이다. 겸재는 38세, 죽창은 36세였으니 죽창은 현재를 화가로 대성시키자면 겸재에게 보내 가르쳐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을 듯하다.

(澗松文華 제73호 전제)  
< 다음호에 계속 >



### 청조근정훈장

沈相喆(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2008年 2月 29日  
停年退職(38년 8개월)

- 略歷 -

- 경북대학교 공과대학장
- 경북대학교 대학원장
- 한국공학 한림원회원
- 한국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
- 청송심씨 대구총회장
- 현령공파총회장

##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内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과 CD롬(대동세보 전 내용과 시조 ~ 4세조 산소 동영상상을 수록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 ◆ 보급가격 : 22만원(CD롬 포함) 별도 구입(CD롬 : 20,000원 / 수권 : 40,000원)
- ◆ 송금구좌 : 농협 084-01-179314 심명구
-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종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대동세보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종보축쇄판, 手帖, 鬻지 포함) : 100,000원

## 책자 강매 주의

대종회를 사칭하면서 책자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종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하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송 금 안 내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농 협 084-12-055823  
(을지로4가지점) 084-01-179314  
대종회 심명구

청 송 심 씨 대 종 회  
전화 : (02)2267-7857



대중회 부회장 심갑보

- 삼익THK주식회사 대표이사
- 영남대 대학원 정치학석사, 명예정치학박사
-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위원장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위원회 위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필자가 현대경영에 경영컬럼을 써온 지 만10년의 세월이 흘렀다. 1998년 3월호부터 두 번을 제외하고 매월 컬럼을 기고하였으니 횟수로는 120회가 된다. 필자가 경영컬럼을 쓴 지난 10년의 기간은 기업경영을 하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였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성장은 크게 둔화되었고, 시장개방과 세계화가 가속화되어 기업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또한 기업관련 각종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되었고 해외기업의 국내투자가 감소하였으며, 기업 활동의 운신 폭이 좁아 기업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해 제조업의 공동화(空洞

## 심갑보(三益 THK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 경영컬럼 10년을 마치며

인재 · 고객 · 투명경영 · 정도경영을 위하여

화) 현상이 나타난 시기였다. 게다가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극도로 제한되었고 기업의 생산성은 주(週)5일 근무제 도입과 비(非)정규직 관련법 시행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큰 격차로 벌어졌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보다 분배에 더 무게중심이 두어졌고 국민들의 반(反)기업정서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소위 좌파정권 10년의 산물이라고 기업인들은 인식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리공단 등 많은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존재하고 중소기업 육성관련법과 제도가 어느 나라보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력과 생산성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중소기업을 경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시기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기업 환경 속에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래도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및 신(新)시장 개척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기업은 사람에 의해서 경영되는 것이기에 기업이 필요한 인재상과 그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고 육성하여 기업에 기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였다. 또 내가 만든 제품을 고객이 연속 반복적으로 구매해 주어야 공장의 가동률

을 높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고객만족의 추구가 경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였다. 필자는 10년 동안 노사관계 정부기관(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직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도 기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또 경영자의 올바른 가치관에 바탕을 둔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그것이 주주와 종업원과 국가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믿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혜층(受惠層)이 시혜층(施惠層)이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나 경영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도 하였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을 성장시킨 선배 경영인들과, 성공적으로 기업을 키워온 CEO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경영자의 바람직한 덕목과 경영철학을 찾아보려 시도하였다. 때로는 노사관계제도를 비롯한 경영정책에 관해 비판도 해보고 시정을 건의도 해보았으며 경영자 자신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소양에 관해 스스로에게 다짐도 해보았다.

필자가 컬럼을 써오면서 본인에게 부여

된 현장경영학 이란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을 쓰고 독자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가능한 한 공정성과 객관성의 기초 아래서 컬럼을 쓰려고 노력하였다. 컬럼의 초고를 쓰면 먼저 회사 젊은 임원들에게 회람하여 혹 필자의 견해에 잘못은 없는지 표현이 미숙한 점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10여회 수정 과정을 거쳐 원고를 탈고하여 왔다. 그러나 중견기업 CEO란 한계와 천학비재(淺學非才)한 관계로 주제를 찾고 생각한 바를 적절히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호로써 경영컬럼 집필을 마감하고 좀 더 배우고 익히는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끝으로 10년이란 긴 세월동안 필자에게 지면을 할애해주신 현대경영 측과 부족한 필자의 경영컬럼을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청송심씨중보 편집자는 1998년 9월 제15호부터 현재까지 10년간(총 60회) 심갑보 부회장의 경영컬럼 을 게재하여 일가 분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宗報 발행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영컬럼 집필을 마감하고 더 배우고 익히는 재충전의 기회를 삼고자 하시는 부회장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중보 발행에 많은 기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부 -

## 2008년도 제38회 정기총회 개최



표창패와 공로패 수여식

2008년 5월 2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제38회 定期總會를 개최하였다. 대중회 회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시고 宜洛 副會長님이 臨時議長으로 총회를 진

행하였으며, 會議에 앞서 유공 宗人에 대한 표창을 하였는데 위선사업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龜鑑이 되고 있는 南서울총회장 相直씨와 淸州宗會 副會長 載龍씨에게 표창패와 부상을 수여하였다.

2007년도 대중회 업무추진내용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案)을 심의 승인 하고, 2008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案)을 심의 통과시켰다.

會長團과 총회에 참석하신 各 派宗會長 및 地域宗會長



정기총회 장면

의 인사소개 후 宜洛 임시의장님의 만세삼창(회장님 쾌유를 빌면서 만세, 대중회 발전을 위하여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총회를 마쳤다. 갈비탕에 소주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일가간의 돈독한 정을 느꼈으며 來年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 )권
3. 종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 )권
4. 제향흘기(휴대용)	30	3,000원	(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 )권
6. 뺏 지		1,000원	( )개

▶ 1, 2, 3 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과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주 소		우 편 번 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 )은행 ( )지점



###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질단위 外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번지와 동 호수 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 전 화 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송금인이 본인이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보 내 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79314(심명구)

# 조선시대 栗谷 李珥의 경장론과 폐법의 고찰 -

- 沈星求 이사 -

- 1. 서언
- 2. 본론 - 조선전기의 정치적 사회관
  - 1) 율곡의 국가관과 사회사상
  - 2) 율곡의 경장론과 폐법으로 개혁을 주장
  - 3) 파주향약(坡州鄉約)에서 선양(先養) 후교(後教) 강조
  - 4) 율곡의 철학관과 이기심성론의 전개
- 3. 결론 - 이기치묘의 발전적 원리와 현대적 관점

## 1. 서언

### 1) 율곡 이이의 국가관과 사회사상

우선 율곡이 주장하는 경장(更張)과 폐법(弊法)을 논하고자 한다.

조선 전기에는 선진성리학자의 지지로서 조선을 건국하면서 왕권전제 체제를 갖추려고 유학의 인정(仁政)을 건국정신으로 삼았던 것이다.

태종(太宗)은 유교주의자였다. 세종은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여 젊은 학자들을 독려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역사의 제도를 연구시켜 치국, 치민, 교민(治國 治民 教民) 등에 관한 서적을 편찬하였다.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하였으며 한국 역사에서 자국의 문자를 가지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한글은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문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漢字나 漢文의 독음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土地는 세종 후기에 164만결(結)에 다다랐는데, 이는 조선 500년간 가장 많은 양이다.

세종은 인재 발탁과 기용에도 탁월하여 관원들이 맡은 직분을 오랫동안 수행하게 했으며 예(禮)와 함께 락(樂)을 만들고 전장문물(典章文物)을 정비하여 빛나는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후세에 해동요순(海東堯舜)이란 칭송까지 받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전국 인구수를 파악하고자 조선조 초기에 호적법을 만들어 전국의 호적을 정리 하였다. 신분제도에 의한 패호법(牌號法)을 만들었다. 호(戶)를 단위로 하여 호주의 성명과 처첩, 동거인 및 본인과 처가의 자손을 기록하게 되었다. 일부다처인 양반층에는 처(妻)와 첩(妾)의 구별이 엄격하여, 양반가에서 시집은 부인을 妻, 庶人층에서 시집은 부인을 妾이라 하였다. 妻가 출산한 아들을 적(嫡)이라 하고 妾이 출산한 아들을 서(庶)라 하여 적서(嫡庶)의 구별을 엄격히 하였다. 嫡子는 세습으로 양반이 될 수 있었으며, 군역을 복무할 필요가 없었고, 과거를 통하여 관리가 될 수 있었다. 庶子는 관청에서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고쳐 쓰는 선사(繕寫: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고쳐 베끼) 등의 일을 맡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中人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특권이 없었으며, 통상 庶人을 병칭하여 중서(中庶: 중인(中人)과 서얼(庶孽)을 아울러 이르는 말) 라고 하였다. 호적의 정리는 잘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세종 14년에

世宗新錄, 地理誌 戶口 조사에는 우리 왕조의 인구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록된 자는 겨우 10분의1에 불과하다. 국가가 매번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거듭 민심을 잃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어 각도와 관청의 인구수는 잘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다른 道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世祖 3년에 梁誠之는 상소하여, 지금 우리 왕조의 호구법이 명확하지 않아 江原, 黃海, 平安道는 대부분 장정 한 사람을 1戶로 하고, 慶尙道와 全羅道 및 咸吉道 六鎭은 간혹 여러 사람을 1戶로 하기도 하지만 京畿道와 忠淸道는 이보다 심하지는 않았다.

강원도와 황해도 산간의 郡民들은 생업을 잃고 떠돌아다녀 이전에 여러 호가 맡았던 부역을 1戶가 담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하였다.

경상도와 전라도 연해의 郡은-사라지거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군사를 모으고 자 하여도 관련 장부를 찾을 수 없으니 모두 다 도망가서 숨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성종 21년 윤효손(尹孝孫)의 계문(啓文)에는 대전(大典)의 호적(戶籍)은 다섯 가(家)를 한 통(統)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었다. 다섯 통을 한 로로 하여 里正을 두었고, 한 면에는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외판 시골의 호적은 마치 법 없는 것과도 같이 흩어져 어지러워 統이 없으며, 풍속과 관련된 일을 저질러도 검거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불효자와 우애 없는 사람도 많이 있게 되었다. 고 하고 있다.

조선을 건립한 이성계 시기부터 성종에 이르는 조선 전기 100년간(1392-1494)은 창업흥성기로서 제도 문물이 세워진 상태로 민생이 안정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연산군(燕山君)이후로부터 50여년간 전후로 해서 사대사화(四大士禍)가 일어났으니 연산군 4년(1498)의 무오사화(戊午士禍), 연산군 10년(1504)의 갑자사화(甲子士禍), 중종(中宗) 14년(1519)의 기묘사화(己卯士禍), 인종 원년(1545)의 을사사화(乙巳士禍) 등의 사화와 선비들의 권모술수로써 정치와 사화가 혼탁하게 되었다. 이때에 율곡은 응지논사소(應旨論事疏)에서 우리 왕조는 태조께서 기반을 다지고 법도를 세워 큰 줄기는 갖추었으나 세세한 절목은 완비되지 못했다 한다.

연산군 때에 조종(祖宗)의 전형(典刑)이 허망하게 되어서 중종반정으로 기강을 세울수 있었으나 대신들은 시무(時務)를 잘 아는 사람이 드물어 논의가 미치지 못했다. 사화까지 일어나서 모든 일들이 와해되고 祖宗의 법과 뜻이 없어지게 되었다. 간사한 관리들은 조목들을 첨가하여 수탈로 부당하게 백성을 병들게 하였다. 그러나 이를 시행한지 오래 되어서 마침내 기성의 법이 되었다 하고 있다. 中宗 초에, 조광조(趙光

祖)는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주장하였지만 전후 4년도 못되어 모함으로 몰려났다. 기묘사화 仁宗의 재위기간은 8~9개월에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율곡의 상소문은 대략 선조(宣祖) 11년(1578)에 쓴 것이며, 을사사화가 일어난지 불과 33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율곡은 연산군 이후 정치사회 현상에 관한 깊은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은 당시 조정의 기강이 서지 않고 백성이 본직을 잃고 처신할 바를 잃은 것을 침통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사간원결변통폐법차(司諫院乞變通弊法劄)에서는 백성의 생업이 이미 궁해졌으며, 재해와 기근이 거듭 닥쳐 굶어 죽은 사람이 길에 가득하고公私의 재정이 고갈되었다 라고 하였다.

또한 옥당진계차(玉堂陳戒劄)에서는 기강이란 나라를 유지하는 원기이나 기상이 땅에 떨어져 있다. 백성이란 나라를 유지하는 근본이나 백성들은 처신할 바를 잃었다. 기강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관료들이 관직을 태만히 하여 사적인 것을 앞세우고 공적인 것을 뒤로 미루니, 아침에 관직에서 쫓겨났다가 저녁에 관직을 제수 받기도 하면서 오로지 먹고 마시는 일만 하고는 직분에 따라 할 일은 등한시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옳고 그름이 뒤섞이어 올바르게 취할 방도가 없었으며 크고 작은 것을 전체를 통섭 할 수가 없었다. 좋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공허한 명령과 법일 뿐 시행되지 않는 문란한 상태로 다스릴만한 분위기가 되지 못했다.父子간에 서로 보전하지 못해 이웃의 고통은 전 지역에 퍼져 제멋대로 악을 행하게 되니 명령으로나 법령으로도 제지할 수가 없었다. 강한 자들은 도적으로 행사하니 마을은 적막하게 되었고, 살던 곳은 갑작스레 황폐해져서 병졸의 쓸모 없는 장부만 지니게 될 뿐 양식은 저축된 것이 없게 되었다.

태평한 100년의 세월 후에 불행하게 되어 백성들은 나라 안에서 무기를 지니게 되었고 섬과 산 속의 오랑캐들은 국경 밖에서 사나워지고 있었다. 그런 즉 밖으로는 성을 지키고 침략을 막는 일을 의탁할 데가 없이 되었고, 안으로는 절개를 지키고 의롭게 죽음으로서 지키려는 기품이 없어져 나라가 붕괴와 해되는 형세가 되어 버렸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율곡의 논의는 그 내용이 광범위하였다.

< 다음호에 계속 >

## 沈영감 심민섭



##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의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各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宗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宗회기를 교체하거나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松沈氏代宗會(02-2267-7857)

宗會名	靑松沈氏	宗會
住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신청내용	宗회기(깃대포함) : 180,000원 宗회기(깃대제외) : 150,000원	

**清州·清原宗會 任員改善**

理監總	副會長	會長
事務	事務	事務
載福	載弘	載星
惠輔	載好	載錫
亨輔	載仁	載元
明彦	載政	載成
재근	載政	載成
	載玆	載權
	載玆	載權

**晉州宗會 任員改善**

總監	副會長	顧問
務事	務事	務事
周潤	周潤	周潤
輔秀	基弘	相倫
	基弘	相倫

二 八 年 三 月 一 九 日

# 宗 事 消 息

## 始祖 文林郎公(諱:洪孚) 寒食節祀 奉行



始祖 配位 4월 5일(음: 2월 29일)  
 初獻: 元燮 配位: 相郁  
 亞獻: 榮燮 配位: 文植  
 終獻: 贊求 配位: 相國  
 執禮: 華燮 大祝: 相國  
 ▶ 獻誠金  
 都總制公宗會: 2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金浦僉正公宗會: 300,000 釜山, 진례, 金海宗會: 200,000  
 安東宗會: 100,000 鐵原宗會: 100,000  
 贊求副會長: 100,000

## 四世祖 青城伯(諱:德符) 春享奉行



青城伯 配位 4월 20일(음: 3월 15일)  
 初獻: 斗燮 配位: 弘澤  
 亞獻: 敏燮 配位: 應植  
 終獻: 文植 配位: 相勳  
 大祝: 相直 執禮: 相稷  
 ▶ 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都總制公宗會: 100,000  
 金浦宗會: 100,000 信川公派春川宗會: 2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 五世祖 安孝公(諱:溫) 寒食節祀 奉行

4월 5일(寒食)  
 初獻: 相德 亞獻: 玄根 終獻: 戊燮  
 大祝: 相稷 執禮: 載玉

## 三韓國大夫人 順興安氏 春享奉行

2008년 4월 19일(음: 3월 14일)



初獻: 相稷 亞獻: 相旭 終獻: 容圭  
 大祝: 光澤 執禮: 庚周

## 二世祖 閔門祇侯公(諱:淵) 春享奉行



閔門祇侯公 配位 4월 16일(음: 3월 11일)  
 初獻: 相泳 配位: 中來  
 亞獻: 敏燮 配位: 哲植  
 終獻: 桂燮 配位: 佶燮  
 大祝: 相華 執禮: 佶燮  
 ▶ 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都總制公宗會: 100,000  
 全北青松會: 100,000 承澤예산宗회장: 300,000

## 青城伯 配位(淸州宋氏) 春享奉行



淸州宋氏 都總制公 4월 22일(음: 3월 17일)  
 初獻: 相昊 配位: 敏燮  
 亞獻: 應輔 配位: 相龍  
 終獻: 忠燮 配位: 載坤  
 大祝: 相弘 執禮: 相稷  
 ▶ 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都總制公宗會: 2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 六世祖 良惠公(諱: 石雋) 春享奉行

4월 25일(음: 3월 20일)



良惠公 配位 滄洲公  
 初獻: 晶求 配位: 求亨 配位: 璋燮  
 亞獻: 晚求 配位: 愚夏 配位: 仁燮  
 終獻: 元植 配位: 英輔 配位: 愚成  
 大祝: 相華 執禮: 載求

## 三世祖 青華府院君(諱:龍) 春享奉行



青華府院君 配位 4월 18일(음: 3월 13일)  
 初獻: 庚周 配位: 敏燮  
 亞獻: 榮燮 配位: 淸澤  
 終獻: 允輔 配位: 英求  
 大祝: 光澤 執禮: 相稷  
 ▶ 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都總制公宗會: 100,000  
 岳隱公宗會: 200,000 承澤예산宗회장: 3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 四世祖 岳隱公(諱:元符) 春享奉行

4월 30일(음: 3월 25일)



岳隱公 配位 令同正公 石村公  
 初獻: 榮燮 配位: 相琥 配位: 相伯  
 亞獻: 宇永 配位: 蓮澤 配位: 相錦  
 終獻: 相喆 配位: 揆聖 配位: 載鏞  
 大祝: 華燮 配位: 璉澤 配位: 宜亮  
 執禮: 相九 配位: 相九 配位: 相九

## 七世祖 忘世亭公(諱:璿) 春享奉行



忘世亭公 配位 4월 28일(음: 3월 23일)  
 初獻: 晶求 配位: 完求  
 亞獻: 隆求 配位: 應輔  
 終獻: 忠植 配位: 世求  
 大祝: 相華 執禮: 載求  
 ▶ 獻誠金  
 蔚山南溪公: 300,000원 蔚山內禁衛公: 200,000  
 完求(前, 蔚山市長): 300,000

世宗大王祭享奉行 4월 8일



亞獻官：載澈(大宗會 理事)

昭憲王后祭享奉行 4월 28일



亞獻官：敏玉(安孝公宗會 理事)

仁順王后祭享奉行 4월 27일



亞獻官：洪燮(大宗會 理事)

端懿王后祭享奉行 3월 23일



亞獻官：相弘(大宗會 理事)

淑容沈氏祭享奉行

2008년 4월 20일

亞獻官：昌燮(金浦)

訃 告

沈正秀(대중회이사)씨 2008년 3월 24일 별세  
익산 전북기계공고교감적산중학교 교장

장남：初輔, 차남：除輔  
딸：玟守, 사위：金禹宗  
壻受：柳浣秀  
美亮：韓仲熙

祝 第18代 國會議員 當選 祝

沈大平：공주시 沈在哲：안양 만안 乙

심의표 시인 제2회 세종문화  
예술대상 문학대상 수상

2008년 4월 19일 예술의 전당 문화대사랑방에서 제2회 세종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심의표 시인/수필가는 문학대상을 수상하여 본인에게는 물론 문중에 경사와 영예를 안겨 주었으며, <내 소유의 창> 과 <이화에 기대선 달> 시집 출판기념회를 갖았다.

상패와 함께 300만원의 부상을 받았는데 그 300만원은 모던포엠의 후원금으로 쾌척하였다.

- 주관：월간 모던포엠 / 세종문화재단
- 주최：세계모던포엠 작가회 / 모던포엠 동인회
- 후원：

- 한국문협, 국제펜클럽, 한국세계작가회,
- 한국시연구협회, 구로문협, 금천문협,
- 민족통일축진회, 자랑스런 서울600인 협회,
- 주)유진플러스, 주)경기산업
- 인천중회 부회장 심명구 소설작가

심성섭씨의 고희 잔치  
대성황을 이루다



2008년 5월 10일 청송읍 周王山호텔 예식장 접객실에서 성섭씨의 고희잔치가 열렸다. 배경음악으로 어버이 은혜 경음악이 은은히 울리는 가운데 1남 5녀와 사위 손녀들이 차례로 축하의 절을 올렸다.

이어서 벌어진 진행자의 민요가락이 온 장내를 울리니 잔치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청송은 원래 청송심씨의 관향으로 수백여명에 이르는 일가분들이 일반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뷔페식으로 점심을 마치니 오늘의 잔치는 대성황리에 끝났다.

龜巖祠 享祀 奉行



성을 다하여 奉祀할 것을 다짐하면서 宗議를 거쳐 과감하게 개혁을 한 것이다.

제향 참석인원은 본손 45인, 長城宗회장 沈貞燮의 세 분, 正郎公宗회 沈完求의 세 분, 金堂山宗회장 沈相八의 세 분, 모두 57인이 參祀하여 보다 숙연하고 경건하게 제사행사를 병행하였다.

〈祭官〉

조헌：沈元植 아헌：沈完求 중헌：沈宗植,  
대축：沈永澤 집례：沈愚慶

〈구암사 임원개선〉

都有司：沈載現 掌議：沈永澤 別有司：沈相溫

〈제수비 헌성금〉

長城宗회：100,000원 正郎公宗회：100,000원  
金堂山宗會：100,000원



全南 谷城郡 立面 琴山里 擇村(出生地)  
靑松沈氏大宗會長 沈明求 撰  
谷城宗會長 從姪 沈愚慶 謹書

湖盛 沈聖植郡守 頌德碑建立

故 沈聖植 郡守는 어진 行政官으로 무언의 實踐家이며, 孝友와 德行이 出衆하여 곡성 영광 장흥 군수를 歷任하는 동안 군민으로부터 君子라는 호칭을 받은 분이며, 公職에서 퇴임후에는 靑松沈氏大宗會 理事, 仁壽府尹公派宗會 副會長, 谷城宗會長 등을 맡아 많은 爲先事業을 하였다.

公이 他界한지 1주기를 맞이하여 출신지 面民과 향리 주민이 公의 훌륭한 遺業을 기리기 위하여 성금을 모아 송덕비(頌德碑)를 건립

하고 3월 29일 除幕式을 거행하였는데 추모객이 무려 300여명이 운집하였다.

식순에 의하여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친족대표 愚慶이 公의 약력 소개와 경과보고를 하였으며 이어서 추진위원장 張殷植님의 인사 말씀과 곡성군수 趙亨來님과 金判準郡議長의 축사가 이어졌다.

가족대표의 인사로 式을 마무리하고 자녀들이 성의껏 마련한 점심을 대접하였다.

# 宗廟大祭奉行 5월 4일



正殿第3室(세종대왕, 소헌왕후) 亞獻官: 載求 理事



永寧殿第11室(명종대왕, 인순왕후) 亞獻官: 星求 理事

종묘제례는 朝鮮王朝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받드는 곳이다. 조선왕조에서 지내는 여러 제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였기 때문에 종묘대제라고도 한다.

종묘대제는 본래 사맹삭(四孟朔)이라고 하여 春夏秋冬 사계절의 첫 달과 납월(臘月)이라 하여 12월에 날을 잡아 1년에 다섯 번 지내고, 永寧殿과 正殿의 제례는 봄 가을로 1년에 두 번 지내었으나 지금은 양력 5월에 兩殿에 지낸다.

종묘대제는 다른 세사 의식과 같이 유교식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크게 보아 神을 맞는 절차에서 神관례(晨禋禮: 迎神과 奠幣)가 있고, 신이 즐기

도록 하는 절차로는 천조례(薦俎禮: 進饌) 초헌 아헌 종헌 음복이 있으며, 神을 보내드리는 절차에는 철변두(撤饗豆) 송신(送神) 망료(望燎)가 있다.

正殿건물은 太祖 3년에 건축이 시작되어 이듬해 9월에 완공되었고, 永寧殿은 세종대왕 때 건축되었다. 사적 제125호인 종묘는 뛰어난 건축적 가치와 6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제례 행사 등의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2001년에는 종묘제례 및 제례악이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지방순회 뿌리교육 실시

2008년도 지방순회 뿌리교육은 大田에서 실시합니다. 대전 보문산 남쪽 기슭에 있는 뿌리공원내에는 각 성씨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으며, 각 문중에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은 1998년도에 조성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大姓氏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으나, 금년중에 69개 문중에서 추가로 각 성씨의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기로 한바, 대중회에서는 각 종회의 헌성금을 모아 청송심씨의 열이란 조형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 설치하게 되며, 준공식을 겸해 뿌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대전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일가분들과 전국의 관심 있는 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조상님들의 영전에 향을 피우며

훈송 沈忠燮 理事

조상님들이 계신 곳에서  
님들의 지나간 영광을 보나이다.  
청송의 보광산에서 후손들을 지켜보시는  
고려국 문림랑위위시승 시조 할아버지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아들과 딸을 낳아  
대를 이어오면서 가문에 영광을 더하니  
이것이 청송심문의 역사가 되었다.

조선조 500년의 역사를 빛낸  
우리 조상님들의 영혼을 찾아서  
웃기를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영전에 향을 피우며 님들의 음덕을 기리나이다.

## 함박꽃 고운 미소

理事 沈宜杓

울밀 한 모서리 보름달처럼  
살며시 고개 내밀고  
한가로이 앉아 기지개 쳐는  
날쌘한 생명 하나

차분히 내리는 봄비 받아  
마시고 씻고 자맥질하고 분주함

나풀나풀 돌아나는  
연삽한 이파리로 녹색치마 두르고

봄 별 이고 거니는 방실이처럼  
활짝 웃는 태 고운 얼굴  
향기 스민 넉넉한 미소에  
지나던 호접(胡蝶) 날개짓 멈춘다.

### 기행문

## 청평寺의 五月

내가 춘천에 살면서도 이 청평사에 온 지가 20년이나 되는 것 같다. 찾길이 나기 전에는 차를 타고 배도 타고 2km 남짓 걸어야 했다.

당시의 스님은 향봉 스님이었다. 젊은 스님으로서는 지명도가 있는 편이라 남녀 대학생들도 많이 찾아오곤 했다. 그 때도 오월이었다. 스님과 둘이 앉아 있는데 대학생이 찾아왔다. 이 절에 향봉스님이 계신다고 해서 뵈러왔는데 계신가요? 그 스님 서을 가셨는데요 스님의 대답이었다. 그런 것으로 보아 번거로운 때도 많았던 것 같다. 나는 그 스님과 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청평사의 극락전은 국보 115호이다. 8작(作) 집으로 특히 기둥을 흑칠도(黑漆塗)한 것으로 휘귀한 절이다. 고려 광종 당시 창건하였을 때에는 백암선원(白巖禪院), 문종 때에는 대보현원(代普賢院), 후에 문주원(文珠院), 조선조 명종 때 청평사라고 하여 현재에 이른다. 중건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고려 말 이조 초기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절의 회전문은 국보 277호로 규모는 작지만 매우 안정된, 단아한 미를 지니는 것을 특색으로 전하는 문이다.

뒤뜰로 돌아가 산을 쳐다본다. 소나무와 잡목들이 오월의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나고 생기도 감돈다. 8.15 당시 휴전선 표시로 소나무를 감고 돌았던 철조망은 사라졌다. 그러나 주춧돌만 옛 자리를 지키고 있던 빈터에는 6.25 당시 소실되었던 법당이 복원되기는 했지만 옛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수령 천년이상으로 추정되던 돌배나무가 유명했다. 푸른 숲을 배경으로 새하얗게 피었던 배꽃, 이 산골에 어찌 두견이 울지 않았겠는가. 휘영청 밝은 달의 조명은 은은하였으리라, 이미 천여년 전의 자연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을 사는 초부(樵夫)의 눈에도 선연한지고.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일 제춘심을 자규야 알아야는/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라는 시조의 배경은 꼭 이 청평사의 정경이었을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 배나무는 최근에 낙뢰로 죽었고, 그 자리만 표시되어 보이는 이의 마음을 허전하게 한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것만도 아니다. 9성(馨) 폭포로 본래는 9그루의 소나무가 있어 9송(松)이라고 하였는데 소나무 한 그루가 낙뢰로 죽자 남은 8그루의 소나무도 모두 따라 죽

었다. 그 후 어느 스님이 폭포의 물소리가 9가지로 들리는 것을 구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후부터 송(松)자를 성(馨)자로 바꾸었다는 이야기다.

아마도 그 스님은 고승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폭포의 소리라고 하더라도 4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바람에 따라, 듣는 이에 따라 달리 들리는 것이 자연의 소리 아니겠는가, 그 스님은 사색과 관조와 침잠으로 이 자연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고작 9m 높이의 폭포인데도 물 흐르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은 아닐 듯하다. 나는 이 폭포 옆에서 아무리 귀를 기루려도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자조(自嘲)하면서 돌아서곤 한다. 그 외에도 당태종의 딸 평양공주와 상사범의 전설로 암반으로 형성된 34곳의 공주탕, 공주탑에 얽힌 이야기는 생략할 수밖에 없다.

나의 관심거리는 연못이다. 고려 때의 구조와 그대로 전해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한다. 사다리꼴로 중심에 작은 산과 징검다리 모양으로 놓인 3개의 돌이 마음(심자:心字)를 상징한다고 전한다. 心자에도 깊은 뜻은 숨겨 있겠지만 수면은 면경지수(面鏡之水)를 뜻함인 듯하여 발길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절을 이토록 마음에 새기는 것은 역사성과 위치, 자연환경과도 무관하지

는 않다.

오봉산 정상을 지점으로 계곡을 따라 이 절 바로 전면으로 흐르는 물을 빼놓을 수는 없다. 아마도 태조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였으리라, 그 연대조차 알 수 없는 긴 역사를 간직하면서 현재까지 한 방울의 오염도 없이 맑은 그대로다. 어느 해인가 친구가 족과 같이 암반으로 흐르는 이 물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암반 위로 졸졸대며 흐르는 물살은 그대로 옥수였다. 건물은 증수, 소실, 복원 등의 사연도 많았지만 이 계곡으로 흐르는 옥수는 한 번도 낮빛을 바꾼 적이 없다. 내가 도시락을 먹고 솔바람 소리를 섞어 마셨던 그 때의 물맛과 연이은 화살표 모양으로 흐르던 물결도 아가의 순수한 미소처럼 변함이 없다.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포장된 도로다. 도로의 방향이 바뀌니 절의 위치도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다. 벚꽃, 개 살구꽃, 개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마치 연두색 바탕 비단에 꽃나무 무늬로 연상케 하는 산경(山景)이 눈으로 가득 찬다. 어디서 아직은 이른 훈풍도 싫지 않을 정도로 웃기를 날린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아무리 잡된 인생살이라고 하더라도 석가의 고행과는 견줄 바도 아닌데, 다시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 人事

윤 구 : 신영증권 일산지점장  
 균 흘 : 한국자금중개(주) 부사장  
 동 영 : 대법원 대구지법  
 상 돈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장  
 順 熙 : 대한석탄공사 안전감독부장(도계광업소)  
 윤 철 : 대구MBC 기획심의실장  
 点 燮 : 한국투자증권 상봉지점  
 成 烈 : 동부증권 고객개발지원팀장  
 심 용 : 한화증권 평택지점  
 상 열 : 에너지정책연구 본부장  
 성 태 :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 심판원조사관  
 우 흥 : 강릉대 학생지원과장  
 윤 구 : 한국지지텔위성방송 인사팀장  
 용 완 : 한국보혈공사 법인사업부장  
 재 은 : 삼성증권 은평지점장  
 성 훈 : 삼성증권 태평로지점장  
 준 식 : 서울메트로 동작팀장  
 인 숙 : 행정심판위원회 중양대  
 원 식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기획관리팀장  
 수 옥 : 삼성전자 전무  
 묘 순 : 한국닛산 경영지원총괄

# 誠金 感謝합니다

## - 宗報贊助 -

정수종회 晉州	100,000	귀동	30,000	구미
固城宗親會 慶南	100,000	亨求	50,000	화곡동
金堂山宗會	400,000	우만	30,000	천호동
夷敬公宗會	500,000	성택	30,000	대구
仁川宗會	200,000	相根	50,000	전주
鐵原宗會	200,000	護雄	30,000	대구
淸州淸原宗會	200,000	永燮	50,000	부평
완구(前 울산시장)	500,000	鳳燮	30,000	둔대동
安孝公宗會	5,000,000	載鐵	50,000	三陟
弘輔(晉州)	200,000	孝澤	50,000	三陟
유 십(망우리)	100,000	일십	30,000	문래동
대섭	30,000	태백시	晟求理事	1.2.3.子 春川
載浩	50,000	安東	昶柱	50,000  변호사
愚慶	50,000	光州	炯柱	30,000  건축사
재선	50,000	김포	範柱	30,000  기술고시
대식	50,000	대구	계택	30,000  광명
건설	50,000	동탄		

## - 理事會 贊助金 -

承澤(예산종회장) : 300,000

## - 總會 贊助金 -

星州宗會	200,000	谷城宗會	100,000
全北宗會	200,000	安東宗會	100,000
谷山公宗會	100,000	岳隱公宗會	100,000
南서울宗會	100,000	仁川宗會	200,000
夷敬公宗會	200,000	鐵原宗會	50,000
大邱宗會	100,000	逸燮(大田)	50,000

## - 舍人公派宗會 誠金 -

安孝公宗會 16,500,000

# 理事會 費

載 緒	50,000	2008	일산
在 成	50,000	2008	일산
柱 燮	50,000	2008	진주
在 主	50,000	2008	진주
鍾 赫	50,000	2008	대중회
種 福	50,000	2008	대중회
載 烈	50,000	2008	대중회
相 八	50,000	2008	光州
在 均	50,000	2008	光州
憲 燮	50,000	2008	光州
石 煥	50,000	2008	光州
愚 慶	50,000	2008	光州
정 식	50,000	2008	光州
判 求	50,000	2008	光州
駿 燮	50,000	2008	光州
상 귀	50,000	2008	井邑
載 政	50,000	2008	全州
載 浩	50,000	2008	安東
東 燮	50,000	2008	晉州
江 水	50,000	2008	仁川
相 厚	50,000	2008	安山
泓 植	50,000	2008	서산
亨 求	50,000	2008	화곡동
相 鶴	50,000	2008	증평
茂 植	50,000	2008	三陟
湖 澤	50,000	2008	大邱
弘 輔	50,000	2008	晉州
載 金	50,000	2008	정릉동
宜 杓	50,000	2008	독산동
相 學	50,000	2008	월계동
相 國	50,000	2008	청송유사
宜 亮	50,000	2008	청송유사
堯 澤	50,000	2008	당산동
信 燮	50,000	2008	여수
愚 夏	50,000	2008	여의도동
晟 求	50,000	2008	春川
行 燮	50,000	2008	長城
觀 燮	50,000	2008	光州
珞 燮	50,000	2008	함열
相 泳	50,000	2008	益山
佶 燮	50,000	2008	全州
仁 求	50,000	2008	益山
斗 燮	50,000	2008	全州
暎 求	50,000	2008	진관동
正 輔	50,000	2008	原州
相 昊	50,000	2008	淸州
成 輔	50,000	2008	淸州
載 龍	50,000	2008	淸州
相 贊	100,000	2007~8	雙門洞
敏 燮	50,000	2008	原州
昌 輔	100,000	2007~8	남양주
宜 哲	50,000	2008	大田
揆 燦	50,000	2008	大田
逸 燮	50,000	2008	大田
相 億	50,000	2008	水原
相 龍	50,000	2008	水原
玄 根	50,000	2008	大田
承 澤	50,000	2008	禮山
尙 道	50,000	2008	全州
相 夏	50,000	2008	鐵原
相 甲	50,000	2008	鐵原
相 根	50,000	2008	全州

相 勛	50,000	2008	여의도동
仲 根	100,000	2007~8	牙山
一 用	50,000	2008	安城
星 求	50,000	2008	구기동
相 穆	50,000	2008	春川
允 澤	50,000	2008	아산
龍 澤	50,000	2008	城南
泳 淳	50,000	2008	城南
相 默	50,000	2008	마포
愚 龍	50,000	2008	마포
政 燮	50,000	2008	安城
元 植	50,000	2008	양평동
求 亨	50,000	2008	성북동
載 善	100,000	2007~8	公州
相 殷	300,000	2008	副會長
相 郁	300,000	2008	副會長
載 求	50,000	2008	용두동
護 雄	50,000	2008	大邱
花 鮮	50,000	2008	禮泉
愚 範	50,000	2008	잠실동
左 輔	100,000	2007~8	仁川
允 輔	50,000	2008	김포
昃 植	50,000	2008	蔚山
根 植	50,000	2008	蔚山
應 輔	50,000	2008	蔚山
壽 輔	50,000	2008	蔚山
烜 燮	50,000	2008	大邱
載 德	100,000	2007~8	安東
在 安	50,000	2008	仁川
鎭 植	50,000	2008	光州
相 高	50,000	2008	鎭川
鍾 漢	50,000	2008	鎭川
上 銀	50,000	2008	응암동
應 璋	50,000	2008	果川
宗 玉	50,000	2008	용인
光 永	50,000	2009	반포동
載 令	50,000	2007	당진

## 大田 뿌리公園 造形物 建立 特別誠金

都摠制公宗會	1,000,000
仁壽府尹公宗會	1,000,000
安孝公宗會	20,000,000
靖夷公宗會	1,000,000
夷敬公宗會	5,000,000
蔚山 內禁衛公宗會	5,000,000
金浦 信川公宗會	5,000,000
光州 金堂山宗會	5,000,000
大田 忠南地區宗會	5,000,000

## 靑松 沈氏 釜山宗會 第32回 定期總會 開催

- 1 日時 : 2008년 6월 1일(일요일)
  - 2 時間 : 오전 11시 ~ 오후 3시
  - 3 場所 : 경남공업고등학교 운동장
  - 4 會費 : 가족당 30,000원
- 靑송심씨 부산총회  
 會長 沈相均  
 연락처 : 010-9785-5879, 016-432-9469  
 2008년 5월

## 5처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지	유 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공	靑 松	相 國	011-554-1313
			宜 亮	016-9225-3618
2세조	합문지후공	함 열	珞 燮	011-676-0892
3세조	靑화부원군	안 성	光 澤	011-732-5768
4세조	靑성백	연 천	良 燮	011-728-2104
4세조비	靑주송씨	靑 주	成 輔	019-480-9994

## 임진강나루

시조시인 심성보

격랑(激浪)의 역사앞에 애끓는 겨레인데 무심(無心)한 임진강은 뭇새가 날으누나 분단이 비통하여도 강물은 유유(悠悠)로다	장구(長久)한 세월로 통일을 빌었던만 처절한 휴전선은 산하(山河)를 가로질러 고적(孤寂)한 사공의 가슴 짓누르고 마는고나	올라가면 고향이요 내려오면 핏줄이 있어 가고파라 오고파라 한탄의 이산(離散)이여 오늘도 황포(黃布) 뚝대는 가고 오지 못하누나
---	--	---